

26장. 성전 강설과 그 결과

26-29장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논쟁을 다룬다. 시대적 배경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이지만 왕이 전면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26장은 여호야김 즉위 초를 배경으로 삼고(609년 경), 27-28장은 시드기야 4년(594/3년경),¹⁷⁾ 29장은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가 그 배경이 된다(597년 경). 거짓 선지자와의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평화'다.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평화가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말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26장의 성전 강설은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25장에서 열방에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여 이방을 심판하실 뜻을 보이셨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이 26장이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여기에서 회복의 싹이 보인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다. 구원의 내용을 몰라본다는 점에서 그들의 잘못은 더 크다.

1. 성전 강설 (26:1-6)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사후에 이집트가 세운 왕으로서, 이집트의 봉신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한 좌절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하였다. 듣지 않으면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열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바로 느고의 조롱거리가 된 배경에서 실로의 고사를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외쳤다. 회개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점에서는 7장의 성전 강설과는 차이가 있다.

2. 제사장과 예언자의 반응 (26:7-15)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레미야에 대한 재판을 시행한다. 유다 방백들은 성전의 새 문(New Gate)에 재판관으로 앉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였다. 그리고 백성이 증인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으나 예레미야는 성전과 성을 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 방백과 백성의 반응 (26:16-19)

예레미야의 말에 대하여 방백과 모든 백성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은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다. 예레미야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된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이다.

몇몇 장로는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시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을 때에(미 3:12) 왕과 백성들이 회개한 사실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는 것의 부당함을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논증은 그 정도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라의 멸망을 돌이킬 방도를 찾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죄를 놓고 논쟁하고, 그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더 큰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야의 죽음과 아히감의 보호 (26:20-24)

여호야김 때에 다른 일도 있었다.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왕이 죽이려고 하자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여호야김은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어서 우리야를 데려와서 사형에 처하였

17) 27장은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로 시작하고 28장은 "이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라고 한다. 따라서 27장과 28장은 같은 해에 된 일이고, 27장의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로 이해된다. 27:3, 12에서도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전한 것으로 기록한다.

다. 여호야김은 바로에 의하여 세워진 왕으로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왕하 23:35). 그래서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야를 잡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여호야김 앞에서 죽었다. 왕은 그가 수치스럽게 여겨지도록 가족의 묘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평민의 묘실에 던졌다.

우리야의 죽음은 그 시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인데, 여호와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통하여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도록 하셨다. 아직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히감의 가족은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아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데에 참여하였고(왕하 22:3-17), 그의 형제 그마라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울 때에 만류하였으며(36:10, 12, 25), 아히감의 다른 형제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29:3). 예루살렘 멸망 후에 총독이 된 그달리야는 아히감의 아들이었다(40:5).

묵상과 실천:

예레미야의 성전 강설에 대한 반응들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1. 두 가지 성전 강설 - 두 가지 맥락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백성에게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 7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다. 7장에서는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7:16).

그런데 26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한다. 7장보다는 조금 더 밝은 면이 있다.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고, 백성들에게서도 미미한 순종의 싹이 보이기 때문이다.

2. 백성들의 모순적인 반응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첫째,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백성은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하였다(26:8-9). 백성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편에 섰다.

둘째, 방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반대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모든 백성’ 이 방백의 편에 섰다(26:16). 예레미야의 진술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예레미야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보호하는 편에 선 것이다.

셋째,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서 백성의 손에서부터 보호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26:24). 백성의 반응을 정확히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이 다시금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데로 기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 이라고 하면서 순종한 것은 옳은 일이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것도 옳은 일이다(26:16).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민족적인 회심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예레미야의 말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멸망을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근원적인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 한 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3. 언약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제사장과 같은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던 백성은 예레미야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나아왔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의 열매다.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제사장들로부터 잠시 떼어낼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진정한 회개

에 도달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은 31장의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백성에게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비시키는 이야기가 27-29장에 계속된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삼아 주신다. 우리는 26장 이후 조금 밝아지는 말씀을 보며 백성의 돌이킴을 조금 감지하게 된다. 미약한 짝이지만, 이것은 새 언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다.

백성의 변덕스러운 반응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백성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십자가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 자들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된다. 십자가를 앞두고 성찬을 제정하신 그 자리에서조차 누가 높으나를 따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예레미야 시대나 사도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요동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품고 가신다. 말씀의 사역자를 변호하는 면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회개에는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 주시면서 주님게로 돌이켜 주신다. 하늘에 계신 대체사장으로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가신다. 또한 부족함이 있는 자도 인내하시면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다.

26장 익힘 문제

1.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와 말씀입니다.
 - 1)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2절)
 - 2)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 3) 청종치 아니하면 성전이 무엇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6절)
2. 성전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8, 11절)
3.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하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3절)
4. 예레미야가 전하는 여호와와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2-16절)
5. 1) 선지자 미가의 예를 들어 백성에게 이사야를 죽이지 말도록 설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7절)
 - 2)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레미야와 똑같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의 말을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한 왕은 누구입니까? (18절)
 - 3)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19절)
6.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굽으로 도망하였으나 붙잡혀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20-23절)
7.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가 백성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절)